

국외출장 결과보고

국외출장 결과보고

- INTX 2016 참관 및 타임워너·CNBC 등 방문 -

2016. 5.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출장 내용	2
1. INTX 2016 컨퍼런스	2
1) Korean Day Seminar	7
2) General Session	10
2. INTX 2016 전시회	5
3. 미디어 기업 방문	7
1) 타임위너 방문	7
2) CNBC 방문	10
3) 한인방송 TKC 방문	12
4) 삼성 뉴욕 글로벌마케팅센터 방문	13
III. 참고자료	14
1) 미국 방송통신 시장현황	14
2) 관련 보도자료	16

I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인터넷·텔레비전 전시회(INTX) 2016을 참관하여 케이블, OTT 등 방송 분야 최신 동향을 파악
- 타임워너 등 미국 미디어 업계와 정책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방송·통신 융합 등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 논의

□ 출장 국가 : 미국 (보스턴, 뉴욕)

□ 출장 기간 : '15. 5. 15(일) ~ 5. 21(토), 5박 7일

□ 출 장 자 : 김석진 상임위원, 곽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이은호 방송지원정책과 사무관

□ 주요 일정

일 자	주요 일정
5.15.(일)	이동 (인천 → 뉴욕 → 보스턴)
5.16.(월)	INTX 참관 및 국내외 관계자 면담
5.17.(화)	INTX 참관 및 국내외 관계자 면담 이동 (보스턴 → 뉴욕)
5.18.(수)	타임워너 방문
5.19.(목)	한인방송 TKC 방문 CNBC 방문 및 견학
5.20.(금)-21.(토)	삼성전자 뉴욕 글로벌마케팅센터 방문 이동 (뉴욕 → 인천)

□ 선물 수령 관련

- 선물 수령 여부 : O (우산·필기구, CNBC 방문 기념)
- 선물 신고 여부 : X (미화 100\$ 이하의 단순 기념품)

II

출장 내용

1 INTX 2016 컨퍼런스

1 Korean Day Seminar

□ 세미나 개요

- 일시 : 2016. 5. 16(월) 09:00~10:20
- 장소 : 보스턴 컨벤션 & 전시 센터 - Room 156BC
- 참석 : NCTA, KCTA, 방통위, 케이블 사업자, 학계 등
- 발제 : NCTA Jim Partridge(기술·서비스 부문 부사장), Steve Effros(정책·규제 분야 고문)



□ 상임위원 축사 주요 내용

- 모바일방송과 OTT의 성장 등 방송과 통신, 인터넷이 융합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시청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접목과 끊임없는 혁신이 불가피함

□ NCTA 발표 주요 내용

- '96년 91%에 달하던 케이블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이 '16년 52%로 떨어졌고, 위성방송과 IPTV의 약진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미국 케이블 사업자는 비디오보다 브로드밴드를 더 많이 제공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FCC의 규제의 초점도 비디오 집중도(video concentration)에서 브로드밴드 집중도(broadband concentration)로 전환됨
 - ※ 미국 케이블 사업자들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종합브로드밴드사업자'임을 선언(INTX '15)
- 가입자 수 : 브로드밴드 6천만명, 비디오 5천3백만명, 전화 3천1백만명
-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 OTT 제공업자들은 FCC의 관할권 밖에 있어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반면, 이들과 경쟁하여야 하는 케이블 사업자들은 FCC의 강한 규제에 묶여 있어 불공평함
- 넷플릭스가 별다른 규제 없이 47백만 비디오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FCC는 '15년 컴캐스트(MVPD 1위)의 타임워너 케이블(MVPD 4위) 인수를 불허하여 케이블 업계의 경쟁력 강화 노력에 제동을 걸었음
 - ※ 이후 상대적으로 독과점 논란이 적은 차터커뮤니케이션(MVPD 7위)이 타임워너 케이블 인수에 나섰고, FCC가 '16년 5월 조건부 승인한 바 있음

② General Session

- 일시 : 2016. 5. 16(월) 11:00~12:00
- 장소 : 보스턴 컨벤션 & 전시 센터 - General Session Stage, Hall C
- 참석 : Michael Powell NCTA 의장, Pat Esser COX communications 대표, Kara Swisher Recode 주필, Brian Roberts Comcast 대표 등



□ NCTA 의장(Michael Powell) 기조연설 주요 내용

-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와 혁신, 경쟁 심화로 인해 시장의 재구성 (restructuring)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인터넷과 텔레비전 시장에 새로운 에너지와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함
- 새로운 막강한 경쟁자들이 나타나 풍부한 자원과 창조성을 무기로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무너뜨리고 있으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미국 케이블업계는 대담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임
- 오늘날 소비자들은 몰아서 보는 (binge viewing) 시청 패턴을 보이고 있고 소프트웨어 앱을 통해 모든 기기를 TV 스크린처럼 셋톱박스 없이 시청하는 것이 대세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함
- 미국 케이블업계는 기가 인터넷을 제공할 것이고, X1 플랫폼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TV Everywhere”를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기기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FCC가 인터넷 기업들은 육성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반면 네트워크 제공 기업들에 대해서는 족쇄를 채워야 할 존재로 보고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2. > INTX 2016 전시회

◎ 케이블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관점에서 脫하드웨어 등 다양한 기술적 이슈들을 제시

□ (脫하드웨어 - TV 안의 셋톱박스)

○ 컴캐스트(Comcast)는 자사 플랫폼인 X1을 기반으로 셋톱박스를 소프트웨어화하여 내장한 'TV 안의 셋톱박스'를 개발하여 OTT 사업자에 대해 경쟁 우위 환경을 만들고 향후 시장 변화에 대비

※ 삼성전자와 공조하여 스마트TV 앱 개발을 통해 'TV 안의 셋톱박스' 시험 중

- 컴캐스트 CEO인 Brian Roberts는 INTX 컨퍼런스에서 오는 8월 개최될 리우 올림픽 서비스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 경기 생중계뿐만 아니라 특정 이벤트나 게임, 선수, 국가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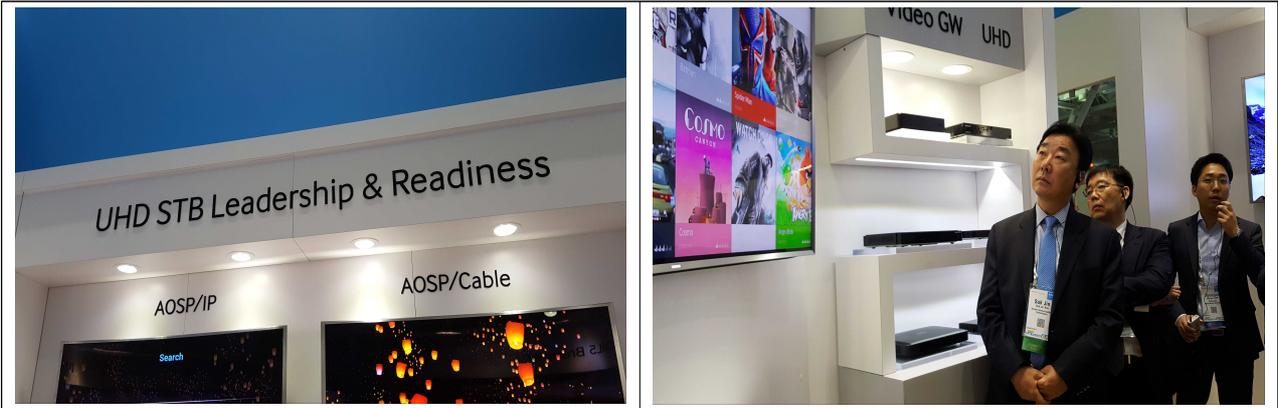


□ (UHD 셋톱박스 개발)

○ 삼성전자는 "UHD STB Leadership & Readiness"를 주제로 UHD 셋톱박스를 전시

- UHD 셋톱박스 도입 예정인 케이블 사업자가 HTML 5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기반 플랫폼인 AOSP(Android Operation System Platform)를 이용하여 UHD 셋톱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제조사로서 두 가지 유형을 제공하여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



□ (케이블망 전송속도 향상)

- o 아리스(ARRIS)는 광전송기술인 10G-EPON 장비와 DOCSIS 3.1 CMTS 장비를 하나의 장비로 제공하는 Gigabit Broadband Solution을 시연
 - 동혼축케이블(HFC)에서 광케이블(FTTH)과 동일한 브로드밴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IPTV와 경쟁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
- o 카사 시스템즈(Casa Systems)는 기존 DOCSIS 3.0에서 1.6Gbps이던 전송속도를 DOCSIS 3.1 기술을 적용하여 4.8Gbps의 전송속도로 향상시킨 장비를 선보임



3. > 미디어 기업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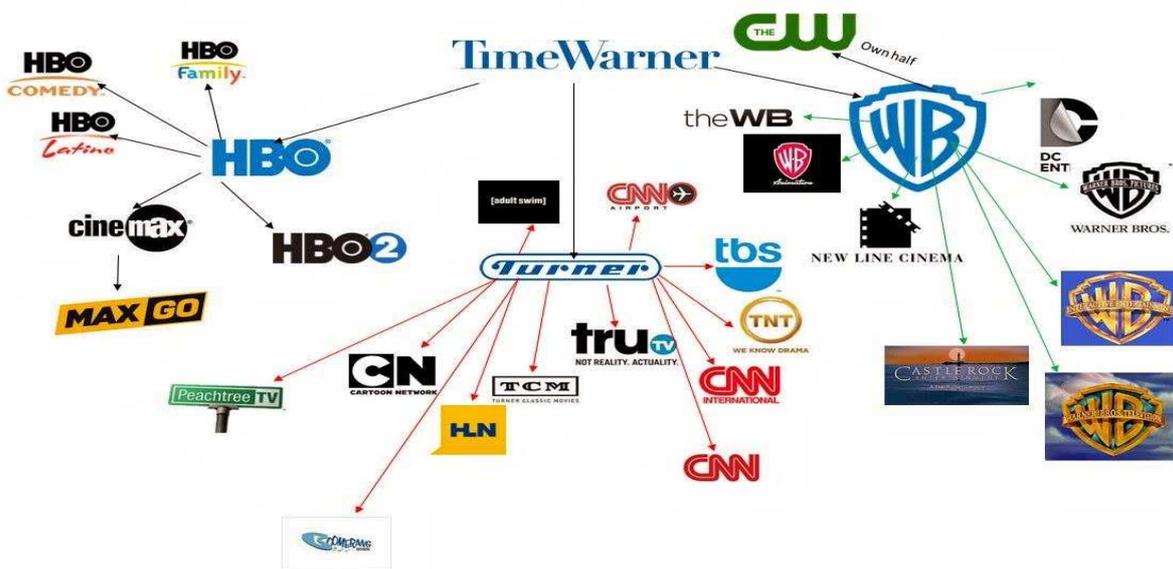
1] 타임워너(Time Warner) 방문

- o 일시 / 장소 : '16년 5월 18일(수) 13:45~14:30 / 뉴욕 타임워너 센터 내 회의실
- o 면담자 : 타임 워너 Carol Melton 부사장

< 타임 워너 개요 >

- o 개요 : 미국의 종합 미디어 기업 그룹으로서 잡지 '타임' 및 영화사 '워너 브라더스', '워너 텔레비전', 케이블 채널인 'CNN', 'HBO', '카툰네트워크' 등을 산하에 둠
- o 일반현황
 - 설립연도 : 1990년, 본사 : 미국 뉴욕
 - 직원수 : 전 세계 24,800명('15년 12월 31일 기준)

<타임 워너 계열사 및 자회사 구조도>



① 세계 미디어 시장 주도의 원동력

- (김석진 위원) 타임워너의 자회사인 HBO가 작년 10월에 열린 제67회 에미상(E Emmy Awards)에서 최다 수상(14개, 프로그램 3, 개인 11)을 하였음
 - 이처럼 타임워너가 자체 콘텐츠 제작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세계 미디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 (타임워너) 창의성(creativity)을 중시하고 사람(people)을 존중하는 타임워너의 기업 문화가 그 비결이라고 생각함

②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와 차별화된 HBO 콘텐츠의 강점

- (김석진 위원) 넷플릭스, 아마존 등 OTT 사업자들이 약진하고 있음
 - 타임워너는 '09년부터 "It's not TV. It's HBO." 캠페인을 전개해 왔고, HBO Now를 통해 전 세계로 자사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데, OTT 사업자들과 차별화되는 HBO 콘텐츠의 강점은?
- (타임워너)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들도 콘텐츠 자체 제작을 하고 있으나, HBO Now는 스토리텔링과 가치로 승부하고 있으며, 트위터, 스냅챗 등 SNS를 통해 시청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음

③ 향후 미디어 산업 발전 방향 전망

- (김석진 위원)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TV 시청 방식을 벗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 콘텐츠가 소비되는 플랫폼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
 - 앞으로 미디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 (타임워너) 미디어 소비에 있어 TV 시청이 여전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모든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봄

④ FCC 규제 관련

- (김석진 위원) INTX 2016 행사에서 FCC 규제에 대한 케이블 업계의 우려를 확인함. 향후 FCC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 (타임워너) FCC의 과도한 규제는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 FCC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FCC의 규제 방향 및 정도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함

⑤ 차터커뮤니케이션즈의 타임워너 케이블 인수·합병 관련

- (김석진 위원) FCC가 인수·합병을 승인하면서 OTT 사업자에 유리한 내용의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케이블 사업자에게 너무 가혹한 조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 (타임워너) FCC에서 확실히 이행하도록 감독을 하겠다고 하니, 이행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주요 인가조건 〉

- OTT 사업 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이익 보호 등에 초점(향후 7년간 적용)
 - (OTT 사업의 경쟁력 확보) 콘텐츠 사업자와 계약 시 OTT 사업자에게 콘텐츠 제공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OTT 사업자에 대한 인터넷 상호접속료 부과 금지
 - (이용자 보호) 인터넷 증량제 및 월 데이터상한제를 금지하며 저소득층의 초고속 인터넷 요금에 대한 할인 실시
 - (초고속 브로드밴드 활성화) 2백만 가구 이상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 구축 의무 부과

⑥ UHD 방송 콘텐츠 관련

- (김석진 위원) 방통위는 올해 10월 지상파 UHD 방송을 허가하여 내년 2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며, 케이블과 위성방송 업계에서도 UHD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UHD 방송의 성공은 콘텐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UHD 콘텐츠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타임워너)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제공이 중요함
 - 타임워너는 2시간짜리 영화, 5분짜리 클립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② CNBC 방문

- 일시 / 장소 : '16년 5월 19일(목) 15:00~16:30 / 뉴욕 CNBC 본사 내 회의실
- 면담자 : CNBC Randy Culbertson 최고재무책임자(CFO), Jonathan Meyers 수석부사장, Susan Weiner 부사장, Nikhil Deogun 편집국장

< CNBC(Consumer News & Business Channel) 개요 >

- 개요 : 미국의 경제뉴스 전문채널
 - '89년 NBC와 Cablevision이 공동으로 설립
 - '91년 주요 경쟁사인 Financial News Network을 인수
(Cablevision은 CNBC 지분을 NBC에 매각하여 NBC가 유일한 소유자가 됨)

□ 주요현황

구 분	내 용
소 속	NBC Universal, Comcast Coporation
포 맷	1,080i(HDTV)
슬로건	First in Business, Worldwide
본 부	Englewood, New Jersey
자매채널	MSNBC, NBC, The Weather Channel, NBCSN, Golf Channel, E!, Esquire Network
위성 송출	Direc TV, Dish Network, C-Band, Shaw Direct(캐나다)
케이블 송출	미국내 대부분 케이블사에서 시청 가능
IPTV 송출	AT&T U-verse, Bell Fibe TV(캐나다), Google Fiber, CenturyLink, PrismTV
스트리밍 서비스	Apple TV, CNBC Plus, Radix TV



①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 (김석진 위원) OTT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CNBC도 CNBC Plus 등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는데,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 (CNBC)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NBC Universal 플랫폼을 비롯하여 SNS, 유튜브, OTT 등 모든 플랫폼에 골고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CNBC의 전략임

② 해외 진출 전략

- (김석진 위원) 현대에는 국가 간 무역·서비스 장벽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함
 - CNBC도 한국에서 SBS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등 세계 각지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과에 만족하는지? 해외 현지 시청자들을 고려한 전략이 있는지?
- (CNBC) SBS와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커버리지 확대뿐만 아니라 CNBC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큼
 - 파트너사의 도움을 받아 현지 사정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CNBC의 해외진출 현황 >

- CNBC Asia(본부-싱가포르)가 출범하면서 해외채널 운영을 시작('95년), CNBC Europe(본부-런던, '96년), CNBC Africa('07년) 등 설립
 - Dow Jones & Company와 NBC가 해외의 비즈니스 뉴스채널 합병을 발표, CNBC Europe과 Dow Jones European Business News, 그리고 CNBC Asia와 Asia Business News가 합병('97년)
 - 한국어 채널로서 SBS-CNBC를 15번째 CNBC 브랜드 채널로서 송출 개시('10년)

③ 방송의 공익성과 상업성의 균형

- (김석진 위원) 시청률 경쟁과 수익성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송 시장 환경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CNBC가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 (CNBC) 방송사가 수익성만 추구하면 공정 보도를 하기 어려우며, 결국 시청자들을 잃게 되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사라진 방송사는 더욱 광고수익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함
 - 제작·편성 부문과 재무 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외부 요인의 영향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③ 한인방송 TKC(The Korean Channel)

- 일시 / 장소 : '16년 5월 19일(목) 10:00~11:00 / 뉴욕 TKC 사무실
- 면담자 : TKC 한상기 사장

< 한인방송 TKC 개요 >

- 설립연도 : 1985년 3월(미국 내 최초의 한국어 방송사)
- 방송현황 : 케이블·위성·인터넷·IPTV 방송을 통해 SBS 콘텐츠(드라마, 예능, 스포츠, 뉴스, 다큐멘터리 등) 방영
- 시청가구 수 : 약 1백만 가구
- 방송국 : (본사) 뉴욕, (지사) 뉴저지, (지국) 서울 강북
- 주요연혁
 - '03 SBS 방영권 단독 획득
 - '00 YTN 및 아리랑TV 방영권 획득
 - '99 KBS 및 MBC 생방송 프로그램 전송
 - '91 미주 최초 24시간 한국어 방송 시작
 - '86 타임워너사로부터 방송채널 획득, 방송 개시(日12시간)
 - '85 채널 설립, 한국 문공부로부터 KBS, MBC 프로그램 방송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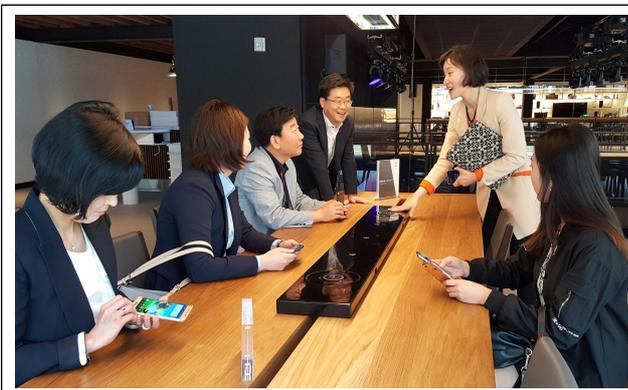
- 뉴욕 지역에서는 TKC가 SBS 프로그램을 전담 송출하고 있으며, 현지 케이블방송(Time Warner Cable, Cable Vision)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현지 한인방송과 KBS 해외방송 간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광고 수주가 어렵고 재정이 열악하므로 한국 정부의 관심과 후원을 희망함

④ 삼성 뉴욕 글로벌마케팅센터 방문

- 일시/장소 : '16년 5월 20일(금) 09:00~10:00 / 뉴욕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센터
- 안내 : 이종철 법무지원팀장, 신혜경 마케팅팀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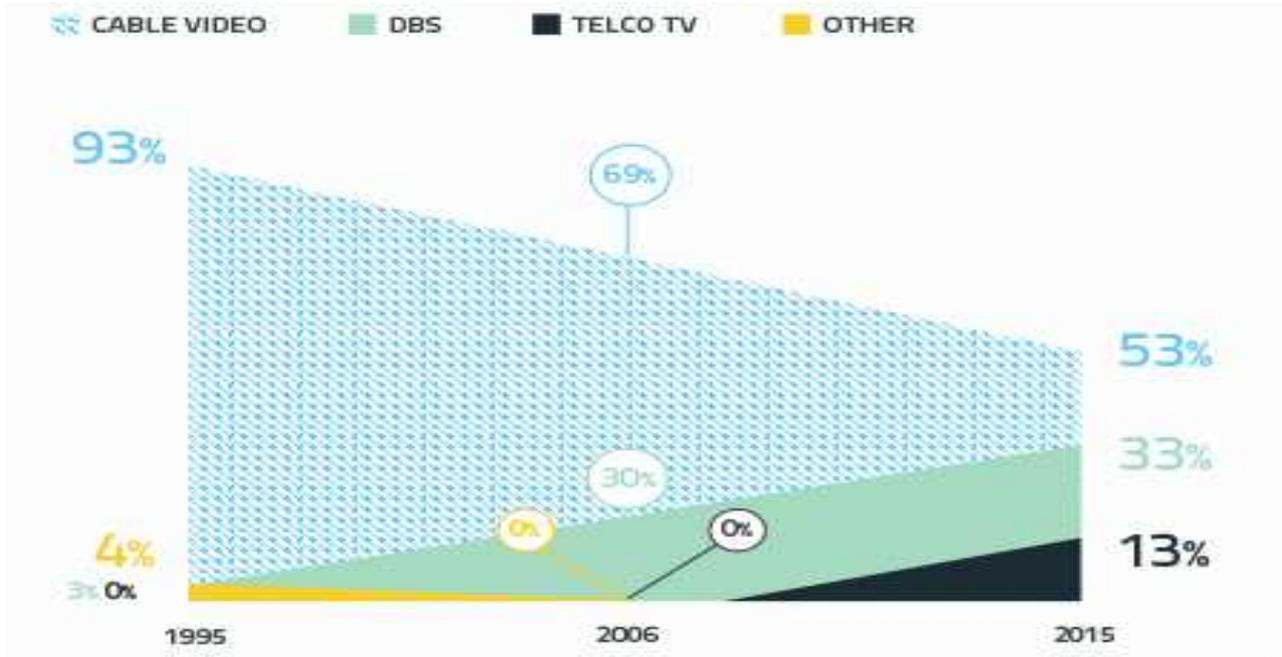
< 삼성 뉴욕 글로벌마케팅센터 개요 >

- (개소일) 2015년 6월17일
- (센터장) 마크 매튜(Marc Matheiu, CMO)
- (주요업무) 북미지역 내 삼성전자의 전 제품 마케팅 업무 총괄 관리
- (특징) 휴대폰·가전 등 신제품 소개, VR(Virtual Reality) 체험, 소규모 초청공연 등을 개최하면서 체험형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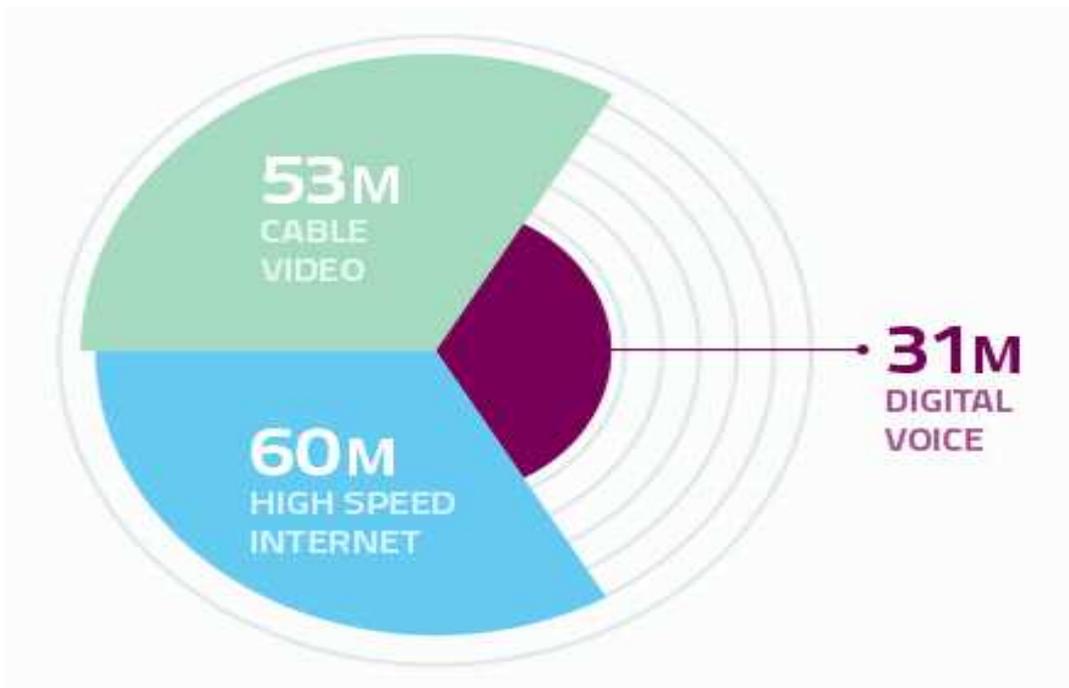
□ 미국 유료TV 시장 점유율 추이

(출처 : SNL Kagan and Company, NC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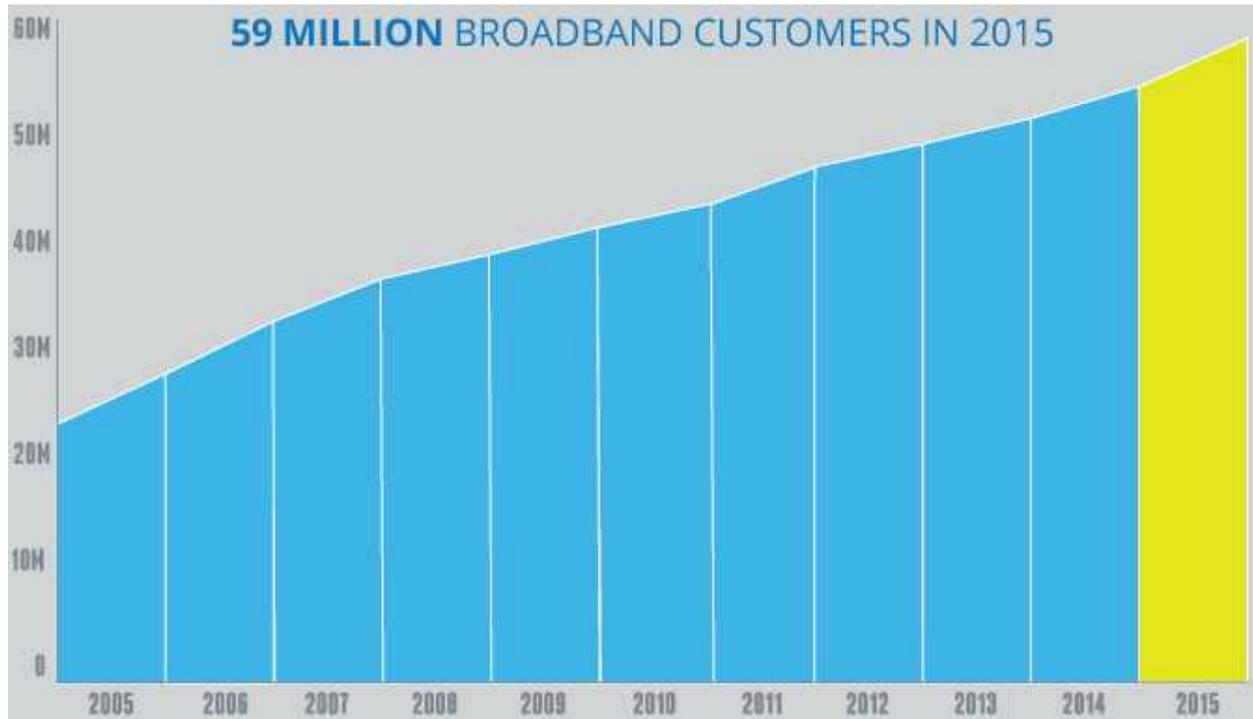
□ 미국 케이블산업 고객 구성 ('15. 12월 현재)

(출처 : SNL Kagan and Company)



□ 미국 케이블산업 broadband 가입자 증가 추이

(출처 : SNL Kagan and Company)



□ 미국 비디오 서비스 가입자 순위 ('16. 1분기 현재)

(출처 : SNL Kagan and Company)

	SERVICE	SUBSCRIBERS		SERVICE	SUBSCRIBERS
1.		47.0 MILLION	6.		12.0 MILLION
2.		25.3 MILLION	7.		4.7 MILLION
3.		22.4 MILLION	8.		4.0 MILLION
4.		17.5 MILLION	9.		2.6 MILLION
5.		13.9 MILLION	10.		1.7 MILLION

2016. 5. 15.(일)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6년 5월 15일(일)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전해선 팀장(☎2110-1331)
장좌영 주무관(☎2110-1332)

방통위, 세계 미디어업계와 방송·통신 융합 등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방송통신위원회 김석진 상임위원은 타임위너, CNBC 등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을 방문하여 방송·통신 융합 등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INTX 2016를 참관하기 위해 15일 출국한다.

* INTX(The Internet and Television Expo, 인터넷·텔레비전 전시회) : 미국 보스턴에서 5.16-18.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케이블·뉴미디어 관련 국제 전시회

김 위원은 18일부터 뉴욕을 방문하여 타임위너의 캐롤 멜튼(Carol A. Melton) 수석부사장, CNBC의 랜디 컬버트슨(Randy Culbertson) 최고 재무책임자(CFO) 등을 면담하여 뉴미디어 등장에 따른 미국 방송·통신 업계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위원은 INTX 2016에 참석하여 삼성전자, 알티캐스트, 컴캐스트 등 국내외 주요 기업 전시관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뉴미디어 업계 최신 동향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끝.

2016. 5. 18.(수)



보도자료

2016년 5월 18일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전해선 팀장(☎2110-1331)
장좌영 주무관(☎2110-1332)

방송통신위원회 김석진 상임위원, 미국 인터넷·텔레비전전시회(INTX) 2016 참관

방송통신위원회 김석진 상임위원은 5월 16일과 17일(미국 보스턴 현지 시각) 이틀에 걸쳐 미국 인터넷·텔레비전전시회(INTX) 2016*에 참가하여 세계 방송·통신 융합 기술과 서비스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 인터넷·텔레비전전시회(INTX, The Internet and Television Expo) : 미국 보스턴에서 '16.5.16-18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케이블·뉴미디어 관련 국제 전시회

김 상임위원은 행사 첫날인 5월 16일 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전미케이블통신협회(NCTA)가 공동주관하는 'Korean Day'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김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모바일방송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 등 방송과 통신, 인터넷이 융합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시청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접목과 끊임없는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2016년 북미 케이블방송산업에 대한 전망과 OTT 등 신규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미래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발표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김 상임위원은 5월 17일까지 이틀간 삼성전자와 알티캐스트(Alticast), 컴캐스트(Comcast)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의 전시관을 방문하여 무한경쟁 속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케이블, UHD, 스마트방송 등 세계를 선도하는 최신 방송·통신 기술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어 18일과 19일에는 뉴욕을 방문하여 타임워너(Time Warner)의 캐롤 멜튼(Carol A. Melton) 수석부사장, CNBC의 랜디 컬버트슨(Randy Culbertson)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면담하고 미국 방송·통신업계 주요 현안과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